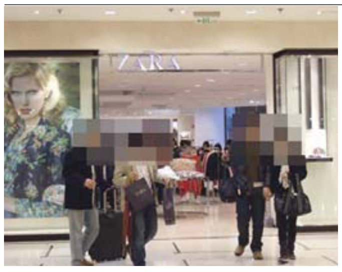


갑질하는 '자라'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제326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2073.31	(−3.48)
코스닥	782.64	(+9.41)
금리(국고채 3년)	1.7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55.00	(+8.80)







"우선주 주총 없인 합병무효"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 별도 주총 추진
3% 또는 1.5% 모으면 주총 소집요구 가능
"보통주와 같은 합병비율 산정은 위법" 주장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양사 주주총회를 통과한 가운데 삼성물산 우선주를 가진 일부 주주들이 별도의 우선주 주총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삼성이 우선주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고 9월1일로 예정된 합병을 강행하면 절차상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삼성물산소액주주연대와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주총 이외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주총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법(435조, 436조)은 합병으로 인하여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보통주 주주총회 외에 우선주 주주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주 주주총회도 보통주주총회와 같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는 이번 합병이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인가 인데, 소액주주연대 등은 이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손해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병의 경우 우선주 합병비율은 비상장사에 준해 자산가치를 반영해 결정했어야 하는데 삼성이 임의로 보통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우선주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한 변호사는 "우선주의 경우 삼성물산에만 있고 제일모직에는 없다. 그런데 삼성은 우선주의 합병비율도 보통주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주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은 상장사인 반면 제일모직은 비상장사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합병 당시 회사 중 한쪽이 상장사고 한쪽이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주가가치가 아니라 자산가치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2호는 "주권 상장법인과 주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합병비율 산정은) 주권 상장법인은 최근 한달간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이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고, 주권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인 자체가 상장된 경우와 비상장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상장이라는 개념이 특정 주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처럼 우선주가 한쪽은 상장, 한쪽은 비상장인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시장전문가는 "합병이 완성되려면 보통주 주총 의결 이외에도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 이의제출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듯, 이번 합병은 우선주 주총도 열어 일종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쪽 회사에 우선주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삼성이 임의로 합병비율을 정했으면 관련 우선주 주주들을 모아 찬반 의사를 묻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5월26일 합병계약 체결 이후 낸 공시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보통주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하면서, 우선주도 이에 준해서 같은 비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시에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소액주주연대 일부 주주들은 삼성물산이 자발적으로 우선주 주총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분을 모아 주총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상법에 따르면 3%이상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대고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삼성물산처럼 상장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이 1.5%만 돼도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물산 우선주 합병비율은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에 합치되게 결정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우선주는 총 464만8653주가 발행돼 있다. 20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919억원이다.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주총 가결 직후 대량 투매와 함께 하한가로 내려앉은 후 20일에도 0.48% 하락한 4만1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강민규 기자 unha@metroseoul.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외인·기관 투매 지속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이틀동안 2000억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국내 기관도 1300억원 넘게 매도했다.

2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각각 432억6600만원, 190억9900만원 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은 합병 통과 당일 삼성물산 주식 968억2000만원 어치를 팔아 최근 5년만에 두 번째로 큰 순매도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은 같은 날 제일모직도 331억1600만원 어치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난 17일과 20일 이틀동안 삼성물산 주식을 모두 1400억8600만원어치 매도했다. 제일모직도 522억1500만원어치 매도우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이틀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모두 1923억100만원어치 매도했다.

기관도 지난 17일 삼성물산 주식을 551억5700만원 어치 팔아치운데 이어 20일에도 168억8100만원 어치 매도했다. 제일모직 주식도 지난 17일 542억7900만원 매도한데 이어 20일 또다시 54억100만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로써 20일까지 기관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1317억1800억원 어치를 정리했다.

두 종목은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1~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연일 동반 하락하고 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3.38%(2100원) 내린 6만원으로 마감돼 간신히 6만원선을 방어했다.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한때 5만9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제일모직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68%(3000원) 하락한 17만6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17만3500원까지 떨어졌다.

앞서 합병이 승인되던 17일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각각 10.39%(7200원), 7.73%(1만5000원) 하락 마감했다.

이로써 2거래일 연속 하락한 양사 주가는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합병 절차 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행진이 이어짐에 따라 이들 종목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한줄 News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 2장을 공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미림여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경문고·장훈고·세화여고는 2년 뒤에 재평가하기로 했다.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연공 중심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제작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김모 대표(45)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54)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초·중등) 교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호인력 등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의 수출을 1년 2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 C&C ㈜ 엔카가 성인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3%가 지난 1월 출시된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를 '최고의 모델'로 꼽았다.

▲ 오뚜기가 20일 굵은 면발의 '**진짜장**'을 출시해 농심 '짜왕'이 독점하고 있는 굵은 면발 라면 경쟁에 뛰어들었다.

▲ 외환은행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한조** 행장 부임 후 외환은행의 실적이 악화하고 친소관계에 따른 인사를 자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김 행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ING생명**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종신보험 상품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출시 발표회를 열었다.

▲ 관세청은 해외물품을 직접구입(직구)할 경우 등에 쓰는 수입신고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전화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 **KB금융**은 감사조직을 확대하고, 계열사 정보를 지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선 이용객**은 1320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증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두 정상 임석 하에 '에너지 산업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삼성합병, 한국재벌 위협 신호탄"

FT "엘리엇 시도, 외국 투자자가 위협 되는 증거"
WSJ "재벌이 한국 발전 방해… 외국인이 되레 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차가웠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영미를 대표하는 경제지 보도에는 이들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언론은 한국 재벌의 내구성과 중요성이 과장돼 왔다며 이제 외국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는 19일(현지시간) '삼성의 엘리엇에 대한 신승(narrow defeat)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재벌' 제목의 기사에서 "엘리엇이 3%의 표 차이로 패배하긴 했지만 한국 대기업을 노린 외국계 펀드 중 가장 근소한 차이였다"며 "한국 재벌이 정교한 지배구조를 가진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엘리엇의 이번 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재벌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봤다. 엘리엇이 지난 12년 동안 한국 재벌을 공략한 다른 외국계 펀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엘리엇이 한국의 무책임한 족벌 경영체제에 대해 점점 단호하게 나오는 해외 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 건과 함께 이번 삼성 합병 건을 한국 재벌의 족벌체제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FT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재벌 개혁 운동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져 스스로 정한 원칙을 손상시켰다고 했다.

WSJ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재벌이 자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고, 삼성에 도전했던 외국인 투자자야말로 회사와 한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성공에서 재벌의 중요성이 항상 과장돼 왔다고도 했다. 또 삼성이 엘리엇의 도전을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이라고 국내 주주들에게 호소한 일을 두고는 한국 주주만을 원한다면 차라리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라고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은행 개점 기다리는 그리스인들 자본통제 조치로 영업을 중지했던 그리스 은행이 20일(현지시간) 3주 만에 다시 문을 연 가운데 연금수령자가 대부분인 고객들이 아테네의 한 은행 앞에 줄을 서 있다. 은행 영업은 재개되지만 현금 인출액 한도 설정 등 일 부 제한은 당장 풀리지 않았다. 하루 60 유로(약 7만5000원)로 제한했던 인출액 한도는 일주일간 420 유로(약 52만5000원)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눈앞'

韓 LCD패널·OLEDTV 제외
IT 관세 철폐 협정, 곧 타결

IT 제품 중 무관세 품목이 기존의 140개에서 200개로 곧 늘어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들 품목에 대한 정보기술협정(ITA)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4(이하 현지시간)~18일 IT제품 200여개에 대한 무관세 적용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이 생산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관세 협정 철폐를 공식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로써 WTO의 IT 관세 철폐 협정이 1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승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협상 시한인 금요일 전까지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은 중국, 한국, EU 등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타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EU는 아날로그 자동차 라디오를 포함해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한국은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미국과 중국의 저항으로 무관세 품목에 들지 않아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회동에서 모두 반대를 철회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OLED TV나 다른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무관세 적용을 원했던 다른 품목 역시 제외됐다고 전해진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 간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과 200여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2012년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확대협상이 시작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연간 글로벌 IT 제품의 무역규모는 약 4조 달러(약 4585조원)다. 이번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 중 1조 달러(약 1153조원) 규모가 무관세 거래가 될 전망이다. 품목으로는 디지털복합기, 자동차 네비게이터,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의료기기가 새로 무관세 품목에 포함된다.

/송병형 기자

野 "국정원 자살, 윗선과 모의한 거 아니냐"

윗선 지시 없이 기밀 삭제하고 자살 '의문'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직접 운용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두고 '윗선과 모의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밀을 윗선의 지시 없이 실무자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느냐"며 "윗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노골적인 정치관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죽은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했다고 유서에서 남긴 내용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할 의혹이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윗선 지시 없이 국가기밀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내용을 삭제하고 지키기 위해 자살까지 감행한 것 △자료 복원 문제의 신뢰성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삭제된 파일이 대북공작기밀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런 국가기밀을 윗선의 보고와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유서 내용대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이 직원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왜 삭제를 했느냐"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하고 자살까지 한 거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삭제한 자료가 디지털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삭제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은 100% 복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이 직원이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디가우저(자기장을 가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로 했다면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복원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이러한 집단행동은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투명한 답변 대신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부채질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치공세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야말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 이번 주 내 100% 복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민식(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진실 규명은 이번 주 안에 끝난다. 이번 주 안에 삭제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고 오늘도 국정원이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컴퓨터의 용량이 400GB라 디가우저를 통해서도 흔적이 남아 복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을 포함해 여야가 만나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하반기 '노동개혁'에 올인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이에 모든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이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이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커지고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며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2%지만 그룹 채용이 지난해 10% 감소에 이어 올해에도 6.3% 줄어들 전망"이라며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목표로 잡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경직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실업급여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윤정원 기자 garden@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제 폐지' 통과시켜

"예민한 사안, 9월 중앙위서 통과시키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제 폐지와 함께 이날 통과된 혁신안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무소환제 도입 등이다.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설치, 정체성 재정립 혁신안 등 민감한 사안은 이날 중앙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후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무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줘 감사하다"며 "혁신은 이제 출발이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문제는 9월 중앙위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당 정체성과 정치개혁, 공천 문제 등 훨씬 더 복잡한 안들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한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중앙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위원들이 통과시켜준 혁신의 뜻을 잘 받들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면서 지난달 23일 임명된 최재성 사무총장은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운 채 물러나게 됐다.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는 대신 당은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소통·민생본부 등 실무형 5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표결에는 중앙위 재적위원 555명 가운데 395명이 참석했다. 이 중 302명이 찬성해 혁신안이 가결됐다. /윤정원 기자

방심위, 인터넷 게시글 직권삭제 논란

"수사권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형사법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글 직권삭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형사법과 통신심의제도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지원 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형사법과 통신심의제도는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라며 "형사법이 통신심의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등과 같은 형사적 개념을 통신심의제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과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 역시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개정 필요성 주장 중 상위법과 충돌해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법학)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의 핵심사항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적인 다툼에 행정권이 관여하는 것이므로 심의개시 시점부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심의규정이 행정심의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말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돼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 위원장은 앞서 낸 성명서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방심위가 지난 9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한 일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윤정원 기자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첫 지급

신규포함 총 137만명 대상

급여별 선정 기준 다층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보장제도 큰 틀 기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 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급여별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20일부터 지급했다.

급여 대상자는 신규 42만명(17일 누적기준)중 6만명이 우선 대상자로 포함돼 총 137만명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131만명이 급여를 받는다.

15년만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껍게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로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난 달까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 포함)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볼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네 가지 혜택의 기준을 달리해 각 개인 실정에 맞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맞춤형으로 바꿔 수혜자의 폭을 넓혔다. 2000년 기초생보제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의 변화다. 지난해 2월에 일어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틀을 바꿨고 이 달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맞춤형 급여의 또 다른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이번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증가하고(10만 가구, 월 평균 8만 3000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맞춤형 교육급여는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되며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신청이 가능하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지급된다. 7월분부터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58·사법연수원 12기·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 시절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형사 법정 방청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초청한 '1인 명예법관 제도' 등을 실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홍원 기자

檢, 이용호 전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법인자금 30억 개인채무 변제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권력형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20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창업투자회사인 K주식회사의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이씨가 차명으로 50%를 투자해 동업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김모(52)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자금 일부로 코스닥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에서 약 25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김씨가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돈 중 약 90억원을 차명계좌에 수차례 입·출금해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재산을 추적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권선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상고 의사 밝혀

"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들의 모집과정, 기획의도나 활동 등을 보면 피고인 권선택의 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통상적인 사회 또는 정치적 활동 범주를 넘었다.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고 포럼이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소요 비용을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어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인 김종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임의제출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1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의 경우 원심과 같이 부정했으나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선고직후 "기대한 것과 다른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대한변협 "저작권법 조항, 친고죄로 개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그러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증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일반 범법 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이홍원 기자 h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이규태-클라라 재판 같이 진행

방산비리·저작권 위반·사립학교법 위반 등 병합
검찰 "피고인 신문 먼저" 제시에 변호인과 기싸움도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복잡한 양상을 띤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쟁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제안,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과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2008년 3월부터 4년간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 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산비리 재판 중 드러났다.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EWTS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사장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됐다. 정 사장 측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방위사업청을 속이려는 의도나 인식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EWTS 사업 계약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인사 개편에 따른 업무상 혼란도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병합 심리로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수의 사건과 피고인이 병합된 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일부 변호인들은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법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피고인 신문은 유불리를 떠나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최근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8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유언'의 법적효력, 어느정도일까

생활 법률

최근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두 형과 갈등을 빚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본인을 돌본 공로로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는데, 형들이 시치미를 잡아 뗐기 때문이다.

A씨는 형들과 재산을 나눌 생각이 아예 없어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평소 부친이 내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언급한 걸 형들도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럴 경우 부친 유언대로 A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법적으로 따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유언은 혼인·입양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기 때문이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받아쓴)증서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조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유언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3형제가 12억원에 대한 상속분을 똑같은 금액인 4억원씩 각각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 증여를 원한다고 해도 민법에서는 상속받지 못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 부친이 생전에 10억의 재산을 A씨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2억원의 재산을 남겼다해도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총 12억원에 대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의 유무를 떠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유선준 기자 rsunjun@

롯데 SPA '자라' 공식 AS센터 "없다"

전문 수선실에서 유료서비스만… 구두는 제공 안돼
"제품 오염 우려" 소비자, 30일 교환·환불 정책 불만



자라 매장.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자라 구두 마니아다. 자라가 세일기간 판매한 구두를 여러 개 구매해 보유 중이다. 자라구두는 발가락 단위 면적이 긴 편이어서 계단이 많은 국내에서는 굽이 빨리 다는 단점이 있다. A씨는 닳아버린 구두 굽을 교환하려고 구두방에 갔다가 수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두 뒤축에 삽입된 강철 파이프에 굽철이 꽉 끼여 있어 빼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선공에게 구두를 폐기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굽을 교체했고 수리 비용으로 3만원이나 지급했다.

롯데쇼핑(회장 신동빈)이 최대주주인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자라의 사후 서비스(A/S)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쇼핑과 스페인 글로벌 패션그룹인 인디텍스사는 지난 2007년 10월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합작해 자라리테일코리아를 설립했다. 올해로 한국 진출 8년째를 맞고 있지만 A/S는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일 자라에 따르면 국내 공식 A/S센터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장 전문 수선실에서 바지 길이 수선 등의 유료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길이 수선 비용은 바지 6000원, 스커트 8000원, 정장셔츠 소매·하단 1만원 등으로 동네 세탁소의 두배 수준이다. 이 마저도 일부 매장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구두의 경우는 아예 수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자라측은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자라매장의 교환·환불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매장 역시 같은 방침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후 판매하기 때문에 공식 AS센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라의 '30일 교환·환불 정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자라는 제품 구매 후 가격표를 제거하지 않고 영수증을 지참하면 30일 이내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기간 옷을 몇 번 씩 입어보고 환불 구매를 할 수 있어 제품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향수 냄새가 배어 있거나 화장품이 묻어있는 등의 경우가 일부 있어 구매할 때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30일간 얼마든지 제품을 착용한 뒤 교환 환불을 해도 매장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자라 측은 "교환환불 정책은 고객마다 반응이 다르다"며 "정책은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철조망 피아노로 '통일' 연주하다

통일부-제일기획

광복70주년 기념 프로젝트 '통일의 피아노' 행사 진행



통일부와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임대기)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통일의 피아노'는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으로 피아노를 만들어 이를 전시, 연주 등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합창단, 삼익문화재단도 함께 참여한다.

피아노 제작은 창작악기 고안과 연주로 유명한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맡았다. 공명 소속 음악가들은 실제 최전방 군부대에서 회수해 온 철조망을 이용해 3개월의 시간을 거쳐 전혀 새로운 악기를 재탄생 시켰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성하 제일기획 프로는 "작년에 방한한 교황에게 휴전선 철조망으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선물하는 것을 보고 철조망이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소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철조망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적 요소를 더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통일의 피아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일의 피아노'는 이색적인 디자인과 음색이 특징이다. 먼저 그랜드 피아노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피아노 줄을 대신하고 있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극명한 대비를 이룬 디자인이 눈에 띈다. 음색도 보통의 피아노와 확연히 다르다. 강철 소재의 반듯한 기존 피아노 줄 대신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철조망을 사용해 건반악기보다는 타악기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통일의 피아노'는 오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북한 프로젝트' 전시회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미술관 로비에 전시된다.

/김종훈 기자 fun@

임종룡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우수기업 지원"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투자저변 확대 도움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다음카카오를 방문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크라운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위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은 것을 말한다.

이는 창업초 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지원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난 6일 국회 논의 2년만에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하위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 플랫폼에 게재하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법은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생·창업기업에게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라며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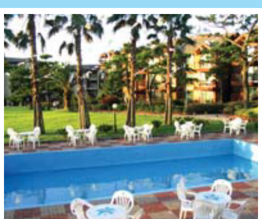
임 위원장은 또 "집단 지성(Big data)를 활용한 대표적인 핀테크(Fintech) 선도 사례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와 창업·중소기업, 증권사·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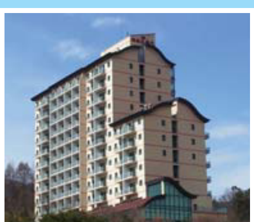
강원도 고성 금강산리조트(229 객실) 실제 전경입니다.


제주 금강산 리조트


부산 해운대 리조트


도고 리조트


설악 리조트


지리산 리조트


나주 스파 리조트


경주 리조트

금강산리조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5층 (주)미봉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LG화학 '호실적'… 부진한 전지, 화학이 살렸다

영업이익 5600억원… 전분기比 55.7%, 기대치比 11%↑
올 3Q 예상 영업이익 6100억원… 2012년 來 최고치 예상

LG화학이 정보소재, 배터리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부문 호실적에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부문은 견고한 반면 전지부문은 내년에나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0.19%(500원) 내린 25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6만9600원까지 치솟으며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는 장 마감 전 소폭 하락 전환했다.

LG화학은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4조9150억원) 대비 3.2% 증가한 5조732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634억원 순이익은 34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55.7%, 43.9% 올랐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G화학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크게 올랐을 뿐 아니라 시장 기대치인 5074억원 보다도 11% 많다"며 목표주가를 40만원으로 유지했다.

3분기 예상 실적도 탄탄하다.

황 연구원은 "LG화학은 3분기에도 이익증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예상 실적은 매출액 5조5064억원, 영업이익 6117억원 등으로 영업이익은 지난 2012년 3분기 이래로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전자소재·전지부문 부진 '발목'

다만 LG화학 실적이 석유화학 부문에 쏠려 있는 것은 부담요인이다.

이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2분기 견실한 실적을 낸 것은 화학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83% 증가한 5892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정보전자소재 영업이익은 1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지부문은 4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LG화학이 지난 2011년 1분기 전지부문 별도 영업이익을 처음 공시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이다.

주요 고객의 판매량 감소로 모바일전지 판매량이 부진한데다 자동차전지의 신규수주에 따른 비용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LG화학이 정보소재, 배터리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부문 호실적에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부문은 견고한 반면 전지부문은 내년부터나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LG화학의 정보전자소재, 전지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정보전자소재는 내년 중국지역 편광판설비 증설로 생산능력은 약 60% 증가하고 LCD글라스 정기보수 종료와 중국 패널업체의 편광판 수요 확대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전지부문은 3분기 아이폰 6S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바일 전지 판매량 증가로 적자 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으로 인한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정보전자와 전지 부문 악화를 감안하면 '그저 그런' 수준"이라며 "3분기엔 석유화학의 큰 폭 이익감소 및 정보전자와 전지 부문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2070선 턱걸이

어닝시즌 우려감 탓
코스닥은 780선 돌파

코스피가 2분기 어닝시즌 우려감에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8포인트(0.17%) 하락한 2073.31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가 하락한 것은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주 뿐만 아니라 수출주 전반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됐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2억원, 1028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308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가 2.30% 하락한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3.25%), 제일모직(-2.23%), 삼성생명(-1.44%) 등이 하락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1.73%), 현대차(0.40%), 아모레퍼시픽(1.99%), 삼성SDS(3.90%) 등은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전거래일 대비 6.64% 떨어진 7450원에 마감했다. 현대중공업(-3.94%), 삼성중공업(-3.94%), 현대미포조선(-3.18%), 한진중공업(-6.73%) 등 조선주가 일제히 폭락했다.

코스닥은 강세를 나타내며 780선에 올라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41포인트(1.22%) 오른 782.64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7일 794.08(종가 기준) 이후 7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2억원 70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8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게임주와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액토즈소프트가 22.27% 급등했으며 위메이드(11.59%), 웹젠(10.52%), 한빛소프트(9.47%), 엠게임(5.9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김민지 기자 minji@



코스피 지수가 조선주 쇼크를 벗어나지 못하며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간 20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교보증권, 국내외 결연아동에 '따뜻한 밥상' 선물 교보증권 '드림이 사회봉사단'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서성철 인력지원실장과 임직원·고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밥상 드림이'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시작해 7회째를 맞이한 '따뜻한 밥상 드림이'는 쌀, 반찬, 영양제 등을 담은 '식량키트'를 만들어 교보증권 임직원이 1대1 국내 결연아동들에게 물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보증권 제공

엔씨소프트, 성장 모멘텀 기대감에 부활 조짐

| 마켓인사이트 |

증권가 "하반기 신작 출시 효과 강력할 듯"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올해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성장 모멘텀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부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5월 20일(종가) 21만8500원까지 올랐다가 6월 10일에는 18만1500원까지 빠졌다. 그러나 최근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는 전거래일 보다 0.63% 오른 23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민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넷마블 게임즈와의 모바일 게임 협업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S'가 공개됐고, 하반기에는 블소 모바일(중국)·아이온레기온즈(국내) 등 기존 인기 PC게임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다"며 "하반기 신작 출시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강력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엔씨소프트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023억원, 영업이익 631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충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분기 리니지 매출은 '드래곤 보물상자' 이벤트와 '룸티스&스냅퍼 깨어난 다크포스' 이벤트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전분기보다 12% 증가한 739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엔씨소트와 넷마블게임즈간 주식스와핑 후 첫 협업 프로젝트인 '리니지 2 모바일'(가칭)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리니지2 지적재산권(IP) 파워 등을 감안할때 '뮤오리진' 못지 않은 빅히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도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조창옥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30%였던 배당성향은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1.4%로 게임업종에서 유일하게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엔씨소프트 등기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완료된다"며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사 선임권 등을 놓고 3분기부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 연구원은 전망했다.

/김민지 기자

“해외 신용카드 결제, 현지통화로 하세요”

금감원 휴가철 금융상식 안내

직장인 이지연(32)씨는 올 여름휴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지난해 휴가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여행지에서 똑 소리나게 지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보험, 환전 등 꼭 알아야할 휴가철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원화로 결제(DCC 서비스) 시에는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하지만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2011년 4839억원이었던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작년 84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문제는 이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돼 현지통화결제보다 5~10%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도난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도 추천했다.

금감원은 도난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차후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때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환전에 관한 팁(Tip)도 알아두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홈페이지 등에 금액기준 환율과 함께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니 환전 전 은행별 외환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며 “인터넷 환전과 미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우리은행, 대학생 대상 ‘금융아카데미’ 실시 우리은행은 20일 안성연수원에서 대학생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제13기 우리은행 금융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금융아카데미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된 대학교 4학년 50명에게 실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금융지식과 취업전략, 기본소양 등을 교육한다. /우리은행 제공

KB금융 “그룹 내부통제 강화한다”

KB금융은 계열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고객 중심의 영업망 재정비와 최근 1122명의 희망퇴직으로 인해 소홀해 지기 쉬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감사조직은 확대되며 계열사 주요정보사항은 지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감사업무 통할기능 강화하고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정보보고체계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계열사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시에는 내부통제항목의 평가비중을 늘려 경영진의 관심제고와 계열사 자율책임기능을 유도키로 했다.

또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와 여름휴가 등을 명령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명령휴가 권고제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명령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명령휴가 운영사례가 없었던 계열사 역시 7월 중에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로는 유일하게 익명으로 비위 제보가 가능한 그룹차원의 외부접수채널을 상반기에 신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백아란 기자

조용병 “리스크·고객 관리로 건전성 높여야”

신한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조용병(사진) 신한은행장은 20일 “하반기 리스크와 고객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은행 연수원에서 전국 부서장과 임원, 본부장 등 약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업력을 발휘하며 상반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고맙다”면서 “올해 전략목표인 ‘창조적 혁신, 경계를 뛰어넘는 금융미래 선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전략적 리스크관리와 세심한 고객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수수료 수익기반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WM/CIB그룹 협업 플랫폼 모델의 확대 ▲조직 전반적인 채널혁신 방안 ▲따뜻한 금융의 현장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그룹별로 하반기 전략 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조 행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국내 금융권 경쟁 심화 등 하반기 영업 환경도 녹록하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인 ‘G.P.S. Speed-up(글로벌 마인드·플랫폼·대응 전략)’을 통해 신한만의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해 가자”고 역설했다.

‘G.P.S. Speed-Up’은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Globalization)을 바탕으로 신한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Platform)과 치밀한 대응 전략(Segmentation)을 갖추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자(Speed-up)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조직 내 막힘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소통을 통해 조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서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백아란 기자



(왼쪽부터)류경기 서울시 행정부시장, 1위를 수상한 LG전자 스켈레톤 팀원 5명, 유석쟁 생보재단 상임이사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 시상식·평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건강·나눔 동시에 잡는다”

생보재단, 도심걷기 프로젝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지난 18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에서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 시상식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총상금 2500만원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금의 50%는 연말에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이다.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는 생보재단이 서울시와 함께 3050 직장인의 대사증후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다. 지난 15주간 프로젝트 참여자 1인당 평균 체중은 5.9kg, 체지방률은 5.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석쟁 생보재단 상임이사는 “재단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무더위도 잊은 청약 열기 '대림 e편한세상'

광교 테라스, 당첨 계약 완판
사하 2차, 전량 1순위 내 마감

8월 동탄·인천·용인 등 분양
2만5000여가구 기대감 높아


대림산업이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청약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가 전주택이 완판되고, 사하2차도 1순위 청약이 마감된 것.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방문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하반기에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 대거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분양한 두 곳에서도 단기간 내 완판과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한 것.

20일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첨자 계약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대림산업이 처음 선보인 테라스하우스로, 지하1층~지상 4층 35개동, 총 576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도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된 바 있다.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는 53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에만 총 1만820건이 몰려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B3블록 전용면적 84㎡ D타입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총 3035건이 접수돼 기타경기에서 407.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보였다.

지난주 청약을 실시한 'e편한세상 사하2차'도 1순위에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대림산업이 서부산에 두 번째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총 946가구 규모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90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당해지역에서만 총 1만653명이 몰려 평균 11.78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됐다. 2가구를 모집하는 84㎡ C타입의 경우 656명의 청약자가 몰려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오는 22일 당첨자 발표 후 27일부터 3일간 당첨자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홍배 e편한세상 사하2차 분양소장은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 프리미엄, 그리고 중소형 위주의 단지구성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요건들이 잘 어우러진 점이 성공적인 청약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첫 물량이 성공적으로 완판되면서 추후 분양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림산업은 올 하반기에 총 18개 사업지에서 2만747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라스 광교와 사하2차를 제외하면 총 2만5962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특히 8월부터는 화성동탄(1526가구), 인천도하(2655가구), 양주신도시(761가구) 등 대형 물량이 집중돼 있다. 10월에는 용인시 남사지구에서 680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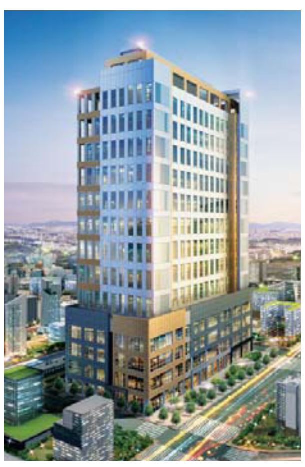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미 상반기에 분양한 8곳 중 7곳이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데 이어 광교테라스 완판과 사하2차 청약마감으로 하반기에도 분양열풍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분양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활성화가 맞물린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라며 "주택시장 온기가 당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양 마케팅 전략과 상품설계, 원가혁신 아이디어 등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사통팔달 교통망·배후수요 탄탄

풍산건설 '동탄역 리치안'
중도금 무이자 선착순 분양


동탄역 리치안 오피스텔 조감도. /풍산건설 제공

풍산건설은 동탄2신도시 일상7블록에서 소형오피스텔 '동탄역 리치안'을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3층, 1개 동, 전용면적 17~22㎡ 총 355실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4층, 오피스텔은 지상 5~13층에 위치하고 있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17.93㎡ 47실 ▲19.89㎡ 54실 ▲20.60㎡ 155실 ▲22.72㎡ 99실 등 소형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7실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동탄2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에는 KTX동탄역을 비롯해 백화점, 호텔 등 상업·업무·문화·생활지역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위치하고 있다. 또 약 21만㎡ 규모의 센트럴파크, 교육시설 등이 조성돼있는 커뮤니티시범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KTX동탄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 수서역까지 18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와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동탄~일산을 연결하는 GTX는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이다.

7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나노시티가 약 3㎞ 거리에 있다. 삼성디지털시티, 기아자동차, LG이노텍공장,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18만명이 종사하는 산업단지가 배후에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최근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상품 보다 평균 1000만원가량 낮은 합리적 분양가로 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주말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와 젊은 30대도 많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는 2017년 6월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77-8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포스코건설 '광교 더샵' 4일 만에 완판 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광교신도시 C4블록에 공급한 '광교 더샵' 아파트가 계약 시작 4일만에 완판됐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일 청약접수에서도 평균 30.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한 바 있다. 사진은 내방객들이 '광교 더샵'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해건협, 24일 이란 진출 전략 세미나

핵협상 타결 후 경제전망 등
정치·제도적 유의사항 설명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 건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과 핵협상이 타결된 이란 건설시장에의 국내 기업들의 진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란 관련 경제, 법제도와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란 경제 현황 동향과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 전망 ▲핵협상 타결 이후의 주요 과제와 이란 건설시장 진출상 정치·제도적 유의사항 ▲이란 건설프로젝트 진출상 금융측면의 유의사항과 진출전략 ▲이란 건설시장 진출현황 전망과 진출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란은 8000만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와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아시아와 주변 중동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과 풍부한 천연자원(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을 보유한 중동의 핵심국가다.

이어 700억 달러 규모(올해 기준)의 건설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은 지난 2010년 유엔 경제제재 이전까지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해건협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이란에의 진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하는 것"이라며 "해외건설 기업들의 이란 진출전략 수립과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LG 야심작 흥행부진… 보릿고개 길어지나

휴대폰·TV사업 경쟁 밀려 2분기 실적 기대치 밑돌 듯 하반기 성장동력 찾기 난항



LG전자의 스마트폰 G4(위)와 올레드 TV. /LG전자 제공

LG전자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야심작으로 시장에 선보인 제품들이 부진하거나 시장 성장이 더뎌 이익률 제고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2분기 실적도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액 약 14조7000억원, 영업이익 약 33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당초 시장의 전망을 밑도는 금액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와 TV 사업을 주도하는 홈엔터테인먼트(HE) 사업본부의 경쟁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G전자는 2분기에 기대작으로 선보인 제품들이 줄줄이 고전했다. 전략형 스마트폰 G4의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린 올레드 TV도 높은 가격의 약점을 지우지 못하고 가능성만을 확인했다.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도 LG전자에 적지 않은 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시장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LG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의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사실상 수익을 양분하는 가운데 LG전자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3분기에 플래그십 모델 출시를 예고하면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LG전자도 G4 후속작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V사업 전망도 밝지 않다. TV 세트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점차 영역을 넓히면서 부담이 늘고 있다. 또 LG전자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올레드 TV 시장의 규모도 아직은 미미해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TV업계는 2017년 이후에나 의미있는 규모의 올레드 TV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휴대폰과 TV 사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LG전자의 마진 압박이 크다"며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획기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LG전자는 수익을 견인할 수 있는 '킬러 아이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확실한 차별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삼성 '갤럭시A8' SKT서 오늘부터 예약 판매

5.7인치 대화면·5.9㎜ 초슬림 출고가 64만9000원 책정



삼성전자 '갤럭시 A8' 화이트(왼쪽부터), 골드, 블랙 색상.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SK텔레콤을 통해 '갤럭시 A8'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갤럭시 A 시리즈의 신제품 '갤럭시 A8'은 풀메탈 프레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5.9㎜의 두께로 슬림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갤럭시 A8'은 5.7인치의 대화면과 풀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갤럭시 A8'은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모두에 F1.9의 조리개값을 적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옥타코어 프로세서, 3050mAh의 대용량 배터리, 32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다. 일체형 디자인이면서도 외장 메모리 슬롯을 지원한다.

'갤럭시 A8'은 SKT 공식 매장과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www.tworlddirect.com)에서 화이트, 골드 색상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향후 블랙 색상도 출시될 예정이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제품이 출시되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제품을 개통하고 다음달 5일까지 프로모션 웹사이트(www.skt-galaxya8.com)에서 사은품을 신청하는 예약 가입 고객에게 '갤럭시 A8' 전용 클리어 커버를 증정한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전자 모델들이 서울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삼성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최고의 집밥 레시피 뽑아주세요

삼성 셰프컬렉션 추천 요리 이달 31일까지 투표 이벤트

삼성전자는 이달 31일까지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이 추천하는 건강한 집밥 레시피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셰프컬렉션의 미세정온기술이 선사하는 식재료의 신선함으로 만든 '건강한 레시피'를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셰프컬렉션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www.chefcollection.co.kr)에서 추천하는 '건강한 레시피' 중 우리 집 식탁에 올리고 싶은 레시피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캠페인 사이트에 응모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초록마을 상품권(100만원권 1매 1명·5만원권 1매 100명)을 증정한다.

셰프컬렉션이 추천하는 '건강한 레시피'는 △돼지 목살 간장구이 △멍게 미나리 비빔밥 △블루베리 소스 닭봉구이 △우럭 파찜 △관자 전과 치커리 무침 등 다섯 가지다.

삼성전자는 이번 온라인 이벤트와 함께 8월 말까지 전국 매장에서 셰프컬렉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79만원 상당의 냉동고와 레시피북·글라스락 등을 증정한다. 무상 이전 설치 서비스도 제공하는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1%의 가능성도 100%로 끌어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

김성근 한화이글스 감독 한화그룹 임원진에 특강



한화이글스 김성근 감독이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화그룹 임원들에게 '김성근감독의 야구와 조직리더십'을 주제로 조찬특강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이 한화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야구와 조직 리더십'을 주제로 100분간 강연을 했다.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특강에는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 금춘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사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6월 말 한화의 가족이 된 김철교 한화테크윈 사장을 비롯해 한화탈레스,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등 빅딜 4사 대표이사와 임원 90여명도 동참했다.

김 감독은 "시즌 중 이렇게 일찍 일어나본 적이 거의 없었다"며 "오랜만에 양복을 입어보니 체중이 6kg 빠져선지 배가 홀쭉해서 옷이 안 맞는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특강을 통해 인간애가 공존하는 리더십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 감독은 강연에서 "직원에게 1%의 희박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잠재력을 100%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직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리더의 자세"라고 말했다.

윤인철 한화테크윈 상무는 "이번 강연을 듣고 지금까지 리더로서의 자세보다는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사가 되려고 행동했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봤다"며 "조직의 목표와 개개인의 발전이 있어야 결국 성공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전자 '벨로2' 글로벌 출시 남미·亞 등서 3G 시장 공략



LG전자는 보급형 3G 스마트폰 'LG 벨로(Bello)2'(사진)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 벨로2'는 지난해 8월 출시한 'L벨로'의 후속작이다. L벨로는 브라질에서만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LG전자는 'LG 벨로2'를 이달 중남미를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CIS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3G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대화면과 우수한 셀피(스스로찍는 사진) 성능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LG 벨로2'에 5인치 디스플레이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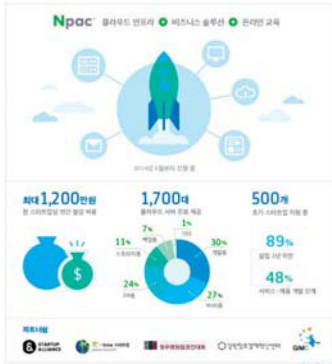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LG 벨로2의 대화면과 강력한 셀피 기능을 앞세워 3G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네이버 'Npac' 1년간 500개 스타트업 지원

1700대 클라우드 서버 제공 기업당 1200만원 절감 효과

네이버가 지난해 선보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상생 패키지 'Npac (NAVER Partner Aid & Care)'가 빛을 발휘하고 있다.

20일 네이버는 Npac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500여 개 초기 스타트업에 1700대의 클라우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pac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용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을 패키지화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네이버 만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기업용 솔루션의 경우 네이버 메일, 캘린더, 주소록 등을 통합한 '웍스모바일'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 서버 1700대를 무료로 지원 받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스타트업당 연간 최대 1200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9%가 설립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다. 회사 특성상 3년 이내에 매출이나 투자 유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패키지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더욱 크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브레이브팝스 컴퍼니'의 이충희 대표는 "서버 비용이 부담인 사업 초기 단계에서 Npac이 큰 도움이 됐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한 번의 문제 없이 안심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향후 Npac에 서버 운영과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네이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스타트업 간 정보 교류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오픈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 스타트업 팩토리'와 연계도 강화해,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창현 네이버 CTO는 "Npac은 D2 스타트업 팩토리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네이버가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해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pac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글로벌K스타트업, 정주영창업경진대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20일 대인시장 '하루에약초' 윤남주 사장이 새롭게 디자인된 점포에서 약초를 판매하고 있다.

광주창조혁신센터, 전통시장 살렸다

리모델링 등 경쟁력 강화 앞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광주 전통시장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과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1월 출범시킨 혁신센터는 '서민주도형창조경제 확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혁신센터는 20일 개별점포 경쟁력 강화의 첫 결과물인 대인시장 시범점포 2곳을 열었다.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위치한 시범점포는 한과를 판매하는 '막둥이 한과'와 약초를 유통하는 '하루에 약초'다.

상점주의 강점과 업종 특징을 살리며 시설·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센터는 강원도 봉평장을 변모시킨 현대카드와 함께 4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포장 및 진열 방법 개선 등 외부적 변화를 추진했다.

또 신메뉴 개발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혁신센터는 대인시장 시범점포 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향후 개별 점포의 개선을 원하는 상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포 개선 프로세스 공유와 소상공인 창조창업 클리닉 등 창업과 업종변경,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아사히 글라스, 하청노조 만들자 도급계약 해지

하청직원 170명 벼랑 몰아 일방적 통보에 공정위 신고

아사히 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 글라스)가 지난달 30일 170여명이 고용된 사내하청업체 GTS에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아사히 글라스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권고사직 또는 대량해고 방식으로 내쫓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5월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아사히 글라스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도급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아사히 글라스 노조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사히 글라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사히 글라스가 GTS와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함으로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아사히 글라스 노동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을지로위원회 제공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005년 아사히 글라스와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사히 글라스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3교대, 주야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또 인력까지 부족해 극심한 노동 강도를 견뎌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연 을지로위원회 측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 사태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는 하도급법 위반이며 경북도민이자 구미시민을 대량해고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상황임으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중공업

해양 기상 예보시스템 개발 자체 예보로 작업효율 높여

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상예보를 이용해 해상의 날씨를 예측하며 작업 효율성을 올린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업계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해양 기상예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시운전하는 울산과 군산, 제주도 등 7곳 해역의 기상변화를 72시간 앞서 예측한다. 시간대별 파고, 풍속, 조류 등의 정보를 파악해 시운전 일정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해양 기상예보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 해상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해당 지점의 기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한반도 전역의 530여개 기상 관측장비와 연결돼 있고 외부 기상 전문업체의 자료보다 해역의 지형 조건을 16배 이상 정밀하게 반영해, 예측 정확도가 10% 이상 높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실적호조 LG화학 "자만은 금물"

7분기만에 영업익 5000억대 회복 박진수 부회장 철저한 대비 당부

"2분기 실적 호조에 자만하지 말라."

박진수(사진) LG화학 부회장은 20일 나주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5000억원대를 회복한 올해 2분기 실적발표 후 임직원의 자만심을 경계한 것이다.

박 부회장은 "외부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LG화학만의 방식으로 이룬 성과라야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침 해가 온종일 계속되진 않는다. 밤을 밝힐 등불을 준비하라"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보다 개선된 성과를 창출한 것은 전 임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또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둔 데 대해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고객을 만족시켜 얻은 결과냐는 것"이라며 "에틸렌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반사이익 등 외부 요인도 반영돼 있는 만큼, 올해는 철저하게 외부 요인에 기인한 성과를 배제하고 얼마나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점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페이퍼아트 뮤지컬
종이아빠
2015.8.8 토 – 2015.11.1 일 코엑스아트홀
수~금 11시 / 주말, 공휴일 11시, 1시 / 월, 화 공연없음 | 티켓가 30,000원 | 관람등급 24개월 이상 | 러닝타임 50분
저자 | 이지은 각색·연출 | 홍경숙 작곡 | 이보람 안무 | 이은주 무대 | 김교은 조명 | 김종석 의상 | 김경희 인형 | 박성찬
총괄팀장 | 신영주 출연 | 김기태 조용기 방미연 배혜미 노혜란 정재진 신정훈 이하정 백나라
제작 행복자 The Blessed 기획 Nine Story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단체예약 및 문의 02)3672–0900

택시 이어 대리운전까지… 다음카카오 ‘O2O’ 광풍

9월 중 고급택시 출시 이어 퀵서비스 고려 중
대리운전업계 ‘영업권 침해’ 반발 집회 열어

다음카카오가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에 기반한 고급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택시의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택시에 이어 고급택시 서비스를 이르면 9월 중으로 출시 예정이다. 이후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접점에 있는 서비스들을 출시 후보로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상반기 카카오택시 운영 경험을 고급형 택시 호출 서비스에 녹여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경험자들이 모바일로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에 거부감이 덜할 것”이라며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을 잘 살려 고급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고급형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수익 기반을 찾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결제를 붙이는 방법이나 추가 수수료를 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고민 중”이라며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출시는 카카오택시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적용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급택시는 택시 표시등이 없고 운임료가 보통 택시의 두 배인 수입·대형차 위주의 콜택시다.

다음카카오는 콜택시 못지 않게 수요가 많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도 후속 서비스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분기 실적발표 당시 “택시 서비스의 인접 영역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을 인접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택시 광고.

대리운전 업계 진출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리운전업계는 이날 집회를 열어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다음카카오의 진출에 긴장하는 눈치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콜택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대리운전 이용자수는 47만 명에 이른다. 대리운전 수수료만 따져도 연간 5000억 원 정도다. 연간 151억 원 정도인 콜택시 수수료의 30배가 넘는 큰 시장이다.

여기에 대리운전 앱이 200~300개씩 난립하고 있고 대리기사 평균 수수료도 20% 정도로 높은 편이다. 요금 기준도 제각각이고 대리운전 기사 신원도 불확실해 고객 불만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 다음카카오가 ‘국민메신저’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서비스 경험을 앞세워 진입한다면 대리운전업계 최강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정용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다음카카오는 기존 대리기사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높은 수수료(20%), 대리운전 프로그램 월 사용료(1만5000원), 대리운전사 보험가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카카오택시를 플랫폼으로 한 카카오대리가 출시될 것”이라며 “카카오대리운전의 시장 진입 시 강력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2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보안 서비스 생태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위의석 SK텔레콤 상품기획부문장(가운데)과 크리스토프 콜라스 트러스토닉 부사장(왼쪽), 김종서 에이티 솔루션즈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금융거래 보안 강화 기대”

보안 플랫폼 활성화 MOU

SK텔레콤이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안드로이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보안 솔루션 회사들과 손잡았다.

SK텔레콤은 영국의 트러스토닉사, 한국의 에이티솔루션즈사와 함께 ‘트러스트존’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보안 서비스 생태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

트러스트존은 스마트폰 칩 안의 운영체제(OS)와 분리된 안전 영역에서 별도의 보안 OS를 구동하는 기술이다. 해커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원천 차단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트러스트존 원천 기술을 가진 트러스토닉과 2012년부터 협력해 트러스트존 보안 플랫폼을 구축했다. 에이티솔루션즈는 이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트러스트존 서비스를 상용화하면 스마트폰만으로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은 기대하고 있다.

위의석 SK텔레콤 상품기획부문장은 “상용 수준의 트러스트존 기반 금융, 보안, 인증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사용자 관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보안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

인사

■ 포스코

▷윤동준 사임, 권오준·김진일 대표이사 체제

포스코는 윤동준 부사장의 사임에 따라 권오준 회장과 김진일 사장으로 대표이사 체제가 변경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코오롱그룹 “헌혈하고 휴가가세요!”

휴가전 임직원 헌혈캠페인

코오롱그룹(회장 이웅열)은 20~24일 경기도 과천 본사를 비롯한 전국 8개 사업장에서 임직원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

여름휴가철 헌혈인구가 급감해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코오롱은 2013년부터 직원이 휴가를 떠나기 전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가 남은 가운데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헌혈상식’, ‘헌혈에 관한 오해와 진실’ 등 내용을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임직원이 헌혈 후 기부한 헌혈증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공팥병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된다.



20일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코오롱 직원들이 헌혈한 뒤 헌혈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코오롱 제공

코오롱 전체 임직원은 1만2000여명이다. 지난해 헌혈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702명이 참여했고, 2년간 기부한 헌혈증은 1300여장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U+, ‘LTE ME’ 출시 기념 프로모션 인기

참여자 3만명 달해

LG유플러스는 신규브랜드 ‘유플러스 LTE ME’ 출시 기념 프로모션이 참여자가 3만명에 이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브랜드 전용 사이트에서 LTE ME가 전하는 미션 문구를 찾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4일까지 한 달동안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프로모션 기간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20~24일)는 1명에게 커피전문점 100만원 이용권을, 1천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LTE ME 브랜드 신규 출시와 함께 시작한 이 프로모션에 지난 3주 동안 약 3만 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LG유플러스는 ‘나’(고객)가 중심이 되는 브랜드 지향점에 따라 ‘나’에 대한 이야기로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 이벤트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장준영 LG유플러스 e마케팅팀 팀장은 “LTE ME의 전달 가치를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마케팅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최저가 아니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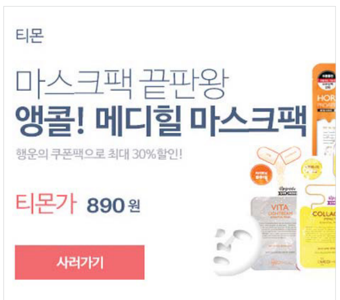
소셜커머스 업계, 마진 축소해가며 ‘최저가’ 확보 혈안
판매업자간 출혈경쟁… 가격비교 사이트 ‘갑’될까 우려

쿠차, 네이버 쇼핑 등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의 등장으로 소셜커머스 업계가 ‘최저가’에 목매며 경쟁사 견제에 나서고 있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장 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노출해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모바일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용 소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티몬(대표 신현성)은 올해 초 ‘최저가 전담반’을 신설했다. 최저가 전담반은 특히 생필품 가격을 매일 확인해 온라인 최저가에서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티몬은 생필품에 한해 마진을 남긴다거나 수익을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생필품을 최저가에 선보여 고객을 1차적으로 티몬으로 유도한 후 또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내달부터는 가격 경쟁력에 배송 전략을 더해 묶음배송이나 총알배송(가명) 등을 서비스 할 예정이다.



가격비교 사이트 쿠차의 홈페이지. 제품과 판매 기업 가격이 노출된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 ‘최저가’ 상품이다. /쿠차 홈페이지 캡처

쿠팡(대표 김범석)은 유통 마진 자체를 감소시켜 ‘최저가’ 확보에 나섰다. 쿠팡의 유통 시스템은 상품 판매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 자체적으로 직접 구매해 배송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 원가를 절약하는 구조다. 직매입 형식의 유통구조를 통해 더 알뜰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G마켓·옥션·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도 ‘최저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출혈경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중계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비교 사이트에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판매자들 간의 가격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며 “어떤 상품을 A판매자가 만원에 판매한다면 다음날 다른 판매자가 더욱 싼 가격에 내놓으며 판매자 스스로 ‘최저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 업체 관계자는 “내 것을 한 개라도 더 팔려면 상대보다 싸야한다. 특히 요즘같이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최저가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격비교 사이트가 ‘갑(甲)’이 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네이버 가격비교나 쿠차와 같은 전문적인 가격비교 사이트가 생기며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이익을 줄여가면서 까지 최저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소비자에게는 좋은 현상일 수 있으나 자칫 과잉경쟁으로 치닫거나 가격비교 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갑’(甲)이 되는 구조로 변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해외 독립운동유적지 지원 캠페인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와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해외 독립운동유적지 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내달 19일까지 고객이 전국 홈플러스 전 점포에서 하이트진로의 상품을 구매 시 해당 제품 판매금액의 3%가 홈플러스 e파란재단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홈플러스 제공

아워홈, 노희영-구지은 불화설 일축

인천국제공항에 ‘푸드엠파이어’ 론칭 성공
노희영 “구 부사장과는 좋은 선후배 관계”

아워홈이 최근 보직 해임된 구지은 부사장과 노희영(53·사진) 히노 컨서링펌 대표의 불화설을 일축하듯 지난 15일 인천공항에 푸드 엠파이어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워홈은 푸드 엠파이어를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을 콘셉트로 인천공항을 테마파크화해 선보였다. 크게 탑승동과 여객동 두 곳으로 나누며 총 4개의 매장에 18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여객동에는 화덕과 치즈를 활용한 서양음식점 ‘모짜루나’와 한식당 ‘반주’가 문을 열었다.

탑승동에는 이슬람교 신자들을 위한 할랄푸드점 ‘니매트’(Nimat)가 입점했다. 퀵 서비스 레스토랑(QSR) 구역에는 ‘인천별미’와 ‘손수김밥’ 등 공항 특성상 간편한 식사를 위한 브랜드들도 들어섰다.

푸드 엠파이어는 아워홈이 급식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해 외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구 부사장과 CJ고문인 노희영 대표가 인테리어 디자인, 메뉴 개발,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특히 구 부사장은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공항 푸드코트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이번 구 부사장의 해임에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 대표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노 히노컨서링펌 대표는 “구지은 부사장과는 좋은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있으며 현재 조직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프로젝트를 맡은 책임자로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의 마음가짐으로 임무수행에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흰우유, 14개월 만에 中 수출 재개

매일유업 생산 5톤 첫 수출
서울우유·연세우유도 준비

한국산 흰 우유(살균유)의 중국 수출이 14개월 만에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우리나라 흰우유 제품이 1년2개월 만에 중국에 수출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 흰우유는 중국 정부가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과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해외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함으로서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살균우유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 2013년 957만4000 달러(4941톤)에서 529만6000 달러(2618톤)로 두 배 가까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수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수출은 흰우유 수출 재개를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소(서울우유, 매일유업, 연세우유)의 흰우유(살균유) 품목이 중국 정부에 등록됨에 따라 성사됐다.

첫 수출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생산한 흰우유 5톤으로 중국 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중국 산동성, 상하이와 북경지역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서울우유와 연세우유 등도 수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출을 재개할 계획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번에 1차로 5톤 가량을 먼저 수출하고 앞으로 월 100톤까지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중국에 계속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상상마케팅스쿨’ 수강생 모집

KT&G, 내달 18일까지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KT&G(사장 민영진)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전 마케팅을 경험하고 코칭 받을 수 있는 ‘상상마케팅스쿨’ 9기 수강생을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상마케팅스쿨은 지난 2010년 시작돼 지금까지 8회에 걸쳐 1만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구글·SK텔레콤·유한킴벌리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마케터들과 취업준비생에게 정장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열린옷장 등 스타트업(start-up)으로 성공한 청년 기업가들이 강단에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려줄 예정이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상상마케팅스쿨에 지원할 수 있으며,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www.sangsanguniv.com)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강생 1330명은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정은미 기자



‘전 세계는 세일 중’ 프로모션 진행

G마켓, 해외 직구족 겨냥

G마켓(대표 변광윤)이 해외직구족을 겨냥해 이달 31일까지 ‘전 세계는 세일 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별 인기 상품들을 최대 69% 할인해 선보인다. G마켓에 따르면 모든 상품은 별도 해외 배송대행지 비용이 없으며 현지 구매 방법까지 검증 받은 제품으로만 구성됐다.

미국 상품은 ‘TEMPUR 메트리스 타퍼(싱글·트윈)’를 49만8000원,



‘LG 65인치 UHD 3D 스마트 TV’ 350만원, ‘빅토리아 시크릿 바디용품’ 1만9700원 등에 판매한다.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 ‘몽쥬약구’ 상품들을 최대 60%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중국의 샤오미, 일본의 뷰티용품 등이 마련됐다. 구매가격에는 관세·부가세·배송비·설치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몸매관리 음료 '우엉차' 열풍

다이어트 비법으로 꼽혀 식음료업계 앞다퉈 출시

식음료시장에 우엉차 바람이 거세다.

우엉은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해 신장 기능을 높여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장운동 활성화를 높여 배변을 촉진한다.

여성들이 닮고 싶은 핫한 몸매로 유명한 애프터스쿨 유이와 머슬마니아 대회 출신 모델 유승옥 등이 우엉 차를 다이어트 비법으로 꼽으면서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주목받자 식음료 업계가 앞다퉈 우엉 차 출시에 나섰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곳은 음료업계 1위 롯데칠성음료다. 지난 4월 '초가을 잘빠진 하루 우엉차'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재배한 100% 국산 우엉을 겉껍질까지 통째로 우려낸 것이 특징이다. 칼로리가 없지만 식이섬유 1000㎎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총 200만 개가 팔렸다.



사진 왼쪽부터 롯데칠성음료 '초가을 잘빠진 하루 우엉차', 남양유업 '우엉차', 샘표 '연근우엉차'

롯데칠성 관계자는 "출시 이후 매달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재구매율도 높다"며 "차음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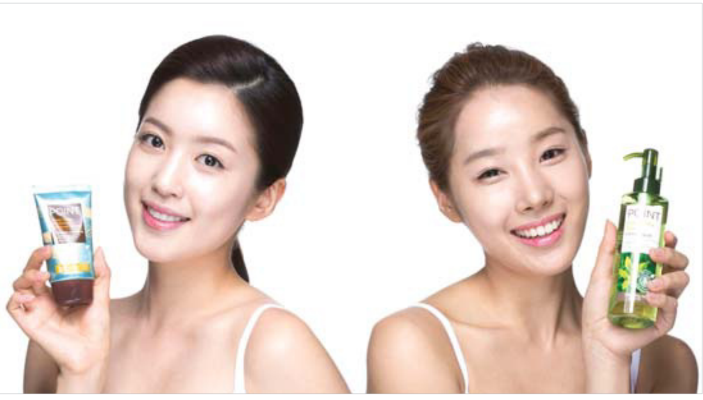
남양유업도 최근 100% 국산 우엉을 껍질째 찌고 덖어서 유익한 성분을 우려내 추출한 '우엉차'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마른우엉 대신 수분이 함유된 우엉을 덖어 우려냄으로써 유효한 성분을 최대한 추출 후 물을 섞지 않고 추출액 그대로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광동제약도 국산 100% 볶은 우엉을 사용한 '광동 우엉차'를 판매 중이다.

음료뿐만 아니라 티백 형태의 우엉차도 있다. 샘표의 차 전문 브랜드 순작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살린 '원물' 타입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티백' 타입 등 두 가지 형태의 '연근우엉차'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우엉의 찬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따뜻한 성질을 지닌 연근을 넣었다.

업계 관계자는 "옥수수수염차와 헛개차로 대표되는 차음료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최근 우엉차가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구수한 맛으로 질리지 않고 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면서 차음료 시장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포인트, 새 얼굴로 여대생 모델 발탁 애경(대표 고광현)의 클렌징 전문 화장품 브랜드 '포인트'가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 연기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영(23), 신예성(22)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다영과 신예성은 드라마·뮤지컬·CF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20대의 젊은 끼와 능력을 펼치고 있는 신예다. /애경 제공

종가집, 국내 종자산업 강화에 앞장

아그로닉스와 상생 협약

대상FNF 종가집(대표 이상철)이 지난 17일 자사 횡성공장에서 동부팜한농, 아그로닉스와 '대한민국 종자산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자 개발·육종·상업화·재배기술 보급·상품화 등을 목표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가와의 상생은 물론 우수 농산물 육성·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논문 세계적 학술지 게재

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 기술연구원은 한상훈 기술연구원장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웨이츠 교수(David A. Weitz)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 17일 자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논문명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액상 나노 결정의 3차원 구조 연구'이다.

연구팀은 결정 구조가 갖는 전자 밀도를 이미지화해 나노미터 크기의 결정 구조를 눈으로 관찰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포를 살아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 생명 현상 원리에 관한 단서를 찾는 기초 연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프리미엄 짜장라면 '진짜장' 출시

오뚜기(대표 이강훈)가 진한 불맛의 프리미엄 짜장라면 '진짜장'을 20일 출시했다. 가격은 135g에 1300원이다. (메트로 7월16일자 기사 참고)

이 제품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중화면 특유의 맛을 살리고 춘장과 양파를 센 불에 볶아 만든 짜장 베이스에 돼지고기와 생강 등을 넣어 옛날 짜장의 구수한 맛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분말 스프를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는 달리 액체스프를 사용해 정통 짜장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유와 햄이 만났다, 동원 '우유 리챔'

동원F&B(대표 박성칠)가 우유로 재워 부드러운 '우유 리챔'을 20일 출시했다. 가격은 200g 1캔이 3580원, 340g 1캔이 5780원이다.

우유 리챔은 1A등급 덴마크 우유로 햄의 잡내를 제거하고 고소한 풍미를 살린 게 특징이다.

마블링이 좋고 육질이 연한 돼지고기 앞다리살 함량이 90% 이상으로 햄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은 물론 우유와 유크림을 더해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민감피부 위한 유기농 화장품 시장 '쑥쑥'

수입브랜드 론칭 잇따라 국내브랜드 매장도 확대 인증기준 등 한계 지적도

유기농(오가닉)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해 왔다면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화학성분이 아닌 순한 성분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유기농 화장품은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영국의 조사기관 오가닉 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는 경우 2007년 200억원 규모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0.03%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약 3000억원대인 3~4%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수입 브랜드의 론칭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유기농 아로마테라피 브랜드 플로랄은 이달 14일 애경백화점(AK플라자) 분당점에 첫 매장을 냈다. 보디케어와 아로마테라피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닥터 브로너스는 2007년 국내에 진출,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를 비롯해 홈쇼핑·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메라가 전문 유기농 브랜드는 아니지만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슈퍼 스프라우트 크림' 등 5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 비욘드도 유기농 성분이 함유된 트루 에코 라인을 전개 중이다.

전문 편집숍도 등장했다. 알뤼는 'A24(에이투포)' 'ROOT' '오가니폼' 등의 유기농 브랜드를 모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전국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2~3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부터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 돼야 한다. 단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할 경우 합성원료를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합성원료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금지되는 제조 공정도 생겼다. 그동안은 제품이나 광고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료 함유량에 상관없이 모두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판매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 유기농 원료 인증 기관이 없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식약처는 미국·유럽 연합·일본 등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원료를 허가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인증마크로는 USDA(미국)·BDIH(독일)·ECOCERT(프랑스)·ICEA(이탈리아)·Soil Association(영국)·JAS(일본) 등이 있다. 문제는 이 인증마크를 받기 위한 기준이 기관 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인증 기관의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업계는 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기준의 모호함, 정보 부족 등의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국내에서 통용되는 보다 명확한 인증 기준과 이를 평가할 심의기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스탠포드호텔 '실속 결혼' 응원

'스탠포드 스몰웨딩' 출시
양식코스·스크린 대여 등
700만~950만원대로 구성

최근 예비신혼부부 사이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은 살리고 실속있게 비용을 줄이는 알찬 결혼식 '스몰웨딩'이 인기를 끌고있다.

배우 원빈과 이나영, 방송인 김나영, 이효리·이상순 커플부터 윤승아·김무열 커플까지 모두 소규모 예식을 진행했다.

스탠포드 호텔(총지배인 왕창근)은 이에 스탠포드 스몰 웨딩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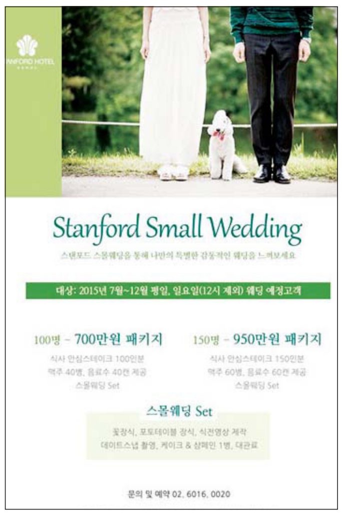
가격은 700만~950만원대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12월까지 평일, 일요일(12시 제외) 웨딩 예정자에 한해 진행된다.

100명, 150명 기준으로 양식코스(안심스테이크제공), 음주류, 꽃장식, 포토 테이블 장식과 데이트 스냅 촬영, 식전 영상물 제작, 빔과 스크린 대여, 1단 케이크와 샴페인 1병 등이 제공된다.

식이 끝난 뒤 꽃장식은 하객이 직접 답례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탠포드 호텔 관계자는 "스탠포드 스몰웨딩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감동적인 웨딩을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뉴발란스컬러런' 행사가 지난 18일 1만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뉴발란스 제공

잠실운동장서 알록달록 컬러 파티

뉴발란스
1만6000여명 '컬러런' 참가

뉴발란스는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뉴발란스컬러런' 행사를 지난 18일 1만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뉴발란스컬러런' 행사 참가비의 일부는 백혈병 어린이돕기를 위해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5㎞ 코스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코스를 따라 매 ㎞마다 배치된 그린·핑크·오렌지·블루 등 4가지 컬러존에서 뿌려지는 컬러 파우더를 즐겼다. 올해 미스트와 물총이 어우러진 리퀴드존이 신설돼 시원하게 즐기는 대회가 됐다.

뉴발란스 브랜드 부스에서는 컬러런의 상징인 컬러파우더가 분사되는 스튜디오안에서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남기는 이벤트가 전개됐다. 10명을 추첨해 바지(VAZEE) 러닝화를 제공하며 당첨자는 21일 뉴발란스 공식인스타그램(@newbalance_kr)에서알 수 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동국제약, 저소득 아이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마데카솔 45주년 이벤트
"사회공헌 통해 성원 보답"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이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출시 45주년을 맞아 7월 한달 간 '가족·사랑·건강·행복 케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마데카솔이 1970년 출시된 이래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받아 온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방법은 마데카솔 브랜드 홈페이지(www.madecassol.co.kr)의 이벤트 메뉴에 접속한 후 캠페인 참여하기를 누른 후 '가족', '사랑', '건강', '행복' 중 1개의 단어와 '케어'를 조합해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대한민국 어린이, 행복하게 케어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상처는 마데카솔로 케어하고 건강하게 크자!' 등과 같이 간략하게 마음을 담아 전하면 된다.



응원 메시지 전달과 함께 마데카솔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월드비전의 '사랑의 도시락'으로 기부된다.

'사랑의 도시락'은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적어도 하루 한 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응원 캠페인을 통한 기부는 8월 여름방학에 급식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45년동안 아이들의 상처 치료를 위해 애써 온 마데카솔이 이런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캠페인 뿐만 아니라 소아암어린이 봄소풍 후원, 유소년 국가대표팀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지속해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관광公 '유학생 기자단' 한국홍보 나서

백제유적 방문·전통문화 체험
SNS 활용 아시아 각국 전파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한아시아·중동 외국인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 서포터즈'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령머드축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독립기념관, 외암민속마을 등 충청권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한국관광 안전과 매력을 아시아중동 국가에 홍보한다.

기자단은 2박 3일 동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방문했다. 또 한국의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했으며 전통 국악기 연주, 활쏘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도 경험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자단 중 싱가포르 유학생(서울대) 메이비스(Soo Ye Fang Mavis)는 "보령머드축제에 와보니 걱정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많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인상 깊었다"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며, 여행을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기자단은 한국 관광지와 문화의 매력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이화의료원, 몽골서 의료봉사 실천

김태헌 단장 등 10명 참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20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몽골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순남 이화의료원장과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등 경영진과 함께 몽골 해외의료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몽골 봉사단은 김태헌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박장원(인공관절센터), 홍근(간센터), 조안나(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간호사 등 총 10명이 참가한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인구 1만 4000여명의 몽골 어문고비 달란자드가드 시 일대에서 이화의 설립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



의료봉사를 마친 후 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타르 송도병원과 국립 의대를 방문해 수술 시연과 특강,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이화의료원의 선진의료 기술을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헌 의료봉사단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많은 몽골 국민이 앓고 있는 간질환에 특화해 간센터 의료진 위주로 구성했다"며 "몽골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몽골 간 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6년 만에 단독 콘서트



가수 MC몽이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20일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MC몽이 오는 9월 4일부터 6일, 11일부터 13일까지 레진코믹스 브이홀에서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타이틀의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생애 첫 스릴러 도전



배우 고아성이 영화 '오피스'로 생애 첫 스릴러에 도전한다. 고아성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내가 좋아하면서도 원했던 독특한 스릴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해보지 못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달 개봉.

최지우와 대학 동기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이 tvN 새 금토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에 캐스팅됐다. 손나은은 38세에 대학에 입학한 주인공 하노라(최지우)의 15학번 동기 오혜미 역으로 예쁘고 발랄한 여대생의 매력을 선보인다. 8월 말 첫 방송.



데뷔곡 '전체 차렷' 발표

6인조 신예 걸그룹 워너비(Wanna.B)가 20일 정오 데뷔곡 '전체 차렷(Attention)'을 발표했다.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밝고 건강한 섹시미를 내세우는 '머슬녀' 콘셉트로 다른 걸그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신곡 '쿠션'으로 컴백

걸그룹 소나무가 20일 정오 신곡 '쿠션(CUSHION)'을 발표했다. 이단옆차기 사단 이스트웨스트와 래퍼 우노가 참여했다. 소나무는 미래지향적인 음악과 스타일링을 담은 '퓨처스쿨' 콘셉트로 활동한다.



영화 '쓰리 썸머 나잇' **류현경**

류현경(32)은 최근 스크린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에 개봉한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로 스크린을 찾았던 그는 지난 15일 '쓰리 썸머 나잇'으로 다시 관객과 만났다. 극중에서 류현경은 자신의 차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버린 남자친구 명석(김동욱)을 쫓아 부산에 내려온 변호사 지영 역을 맡았다. 정통 코미디 장르, 그리고 변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끌렸다. 무엇보다도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다.

리얼한 욕 연기, 제 아이디어에요

정통 코미디·첫 변호사 역에 끌려
입체감 있는 캐릭터 위해 늘 고민
최선 다하는 작업, 후회는 없어요

"시나리오 속 지영은 변화무쌍한 캐릭터였어요. 똑 부러지는 성격을 지닌 '엄친딸'인데요. 부산에 내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는 모습이 재미있더라고요. 캐릭터가 변하는 거잖아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영화에서 류현경은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전작인 '제보자'를 촬영할 때 변호사나 검사 같은 역할을 하면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쓰리 썸머 나잇'에서 변호사 역을 맡은 거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동욱이랑 같이 법 조항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성된 영화에서는 편집이 됐어요. 조금 아쉬웠어요(웃음)."

변호사 말고도 류현경의 또 다른 모습이 '쓰리 썸머 나잇' 속에 있다. 바로 욕 연기다. "사실 제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처음 시나리오에는 욕이 'XXX'라는 식으로만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욕을 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욕에 대한 지도를 받았죠(웃음)." 일탈을 꿈꾸며 부산에 내려왔지만 고생만 하는 남자들을 향해 지영은 솔직한 마음을 내뱉는다. 남자들의 어리석음을 코믹하게 꼬집는 통쾌함이 그 속에 녹아 있다.

많은 여배우들이 여성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를 찾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류현경은 시나리오를 볼 때마다 여자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비중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잠깐 나오는 역할이라도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로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준비한 캐릭터가 편집 과정 속에서 입체감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류현경은 "작업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감독님들로부터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었기에 아쉬움은 없다"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했다.



류현경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8월 개봉 예정인 '오피스'에서는 엄한 상사의 모습으로 직장인의 공감대를 자극할 예정이다. 하반기 개봉을 앞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에서는 연예부 기자로 관객 앞에 설 계획이다.

"20대 때는 현장에 가면 '뚝딱'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촉이 있었어요. 30대인 지금도 그런 부분은 변함없어요. 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연기하려고 해요. '기황후'에 출연한 뒤부터 시나리오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더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어떤 작품이든 후회는 없어요(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고궁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정취

경복궁·창경궁 다음달 11~28일 야간개장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고궁에서 그윽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한여름 국민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8월 11~28일 경복궁과 창경궁을 야간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정기 휴무일은 제외된다. 경복궁의 경우 매주 화요일이고, 창경궁은 매주 월요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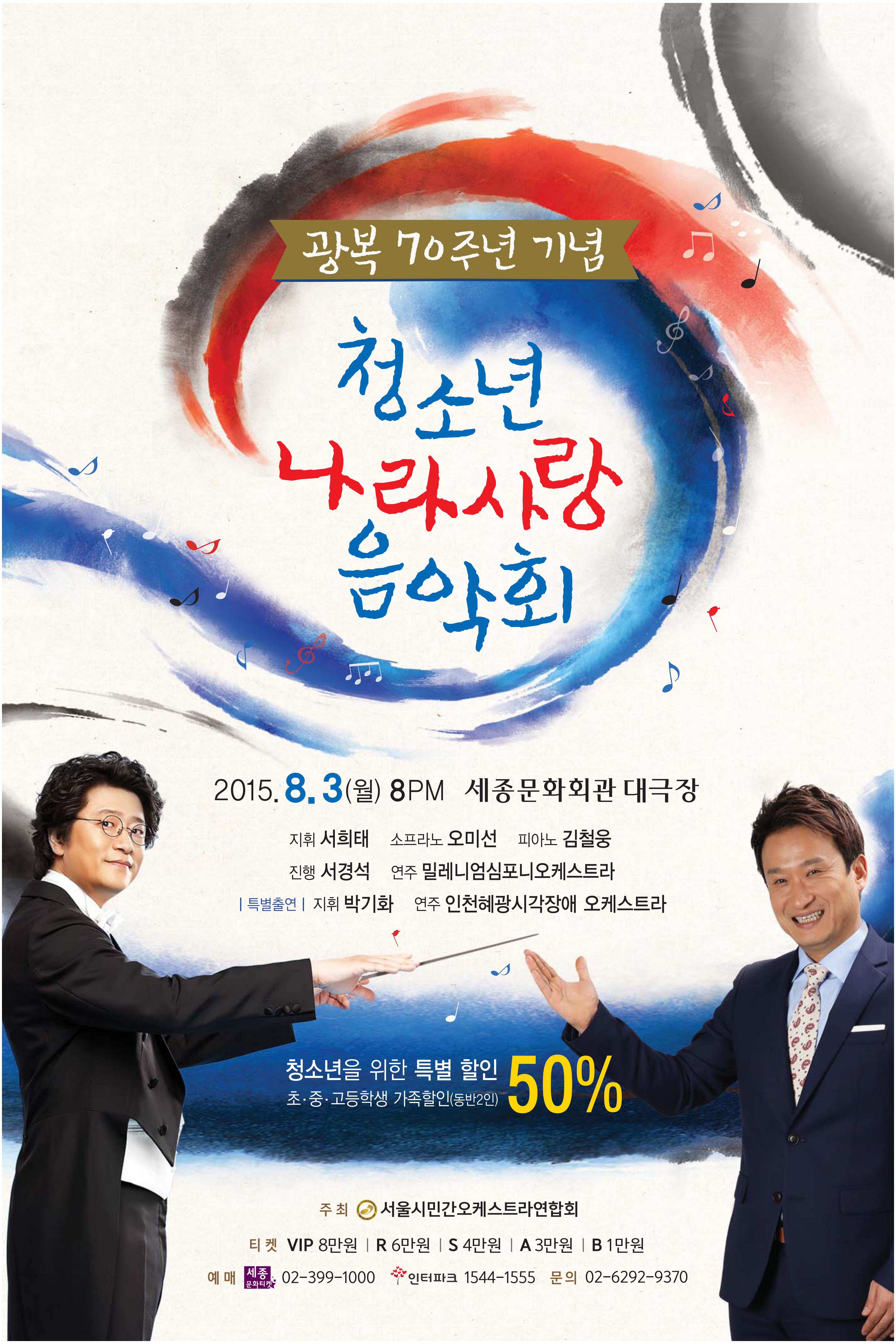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입장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이 기간 경복궁 경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일일 최대 관람 인원은 2500명이다. 입장권 구매는 1인당 4매로 제한된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8월 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 구매나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김민준 기자 mjkim@



광복 70주년 기념
청소년 나라사랑 음악회
2015. 8. 3(월)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오미선 피아노 김철웅
진행 서경석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 특별출연 | 지휘 박기화 연주 인천혜광시각장애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할인 50%
초·중·고등학생 가족할인(동반2인)
주 최 서울시민간오케스트라연합회
티 켓 VIP 8만원 | R 6만원 | S 4만원 | A 3만원 | B 1만원
예 매 세종 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6292-9370

국내 창작 글로벌 뮤지컬 '마타하리' 카운트다운

EMK뮤지컬컴퍼니 제작 2012년 부터 4년간 준비

8월 주조연 오디션 진행 내년 3월 국내공연 예정



지난해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가운데)과 함께한 뮤지컬 '마타하리'의 뉴욕 워크숍 모습.



뮤지컬 '마타하리' 포스터.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레베카' 등 대형 라이선스 작품들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주목받은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가 첫 창작뮤지컬 '마타하리'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 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본명 마가레타 거트루이다 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관능적인 춤과 신비로운 외모로 파리 물랑루즈에서 가장 사랑받는 무희였던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이 20세기 초 파리를 재현한 무대와 어우러져 화려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MK는 2012년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으로 뮤지컬 '마타하리'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이듬해 '마타하리'의 1차 대본을 완성하고, 2014년 뉴욕 맨하튼에서 브로드웨이와 아시아 지역의 공연 제작자 등과 첫 대본 리딩 워크숍을 가졌다. 이후 대본과 음악 수정 과정을 거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뒤 올해 6월 한국에서 2차 대본 리딩 워크숍을 마쳤다.

뮤지컬 '뉴시스' '하이스쿨 뮤지컬' '올리버' 등을 만든 제프 칼훈이 연출을 맡고, '지킬 앤 하이드' '황태자 루돌프' '몬테크리스토'의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곡을 맡았다.

무려 4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한 뮤지컬 '마타하리'는 월드 프리미어 첫 무대로 2016년 3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대망의 국내 공연을 시작할 계획이다.

EMK는 오는 8월 국내 공연에 나설 주요 배우들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한다. 주인공 마타하리를 비롯해 화려한 물랑루즈 무대에 가려져 있던 마타하리의 진실된 모습을 사랑하는 그녀의 연인 아르망, 자국을 위한 충성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마타하리에게 스파이가 될 것을 강요하는 프랑스 군의 라두 대령 등 주·조연 배우들을 대거 선발한다.

접수는 7월 17일~8월 10일 EMK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8월 17~18일 2차, 8월 31일~9월 4일 3차 실기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엄홍현 EMK 프로듀서는 "마타하리는 EMK의 첫 창작 뮤지컬이자 세계 초연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며 "대본, 음악, 무대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최선을 다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작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문의:02)6391-6333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KBS2 '우리동네 예체능'

오후 11시10분

걸그룹 EXID 멤버 하니가 수영편에 깜짝 등장한다. 션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합류한 하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철인 3종 경기 선수로 활동했다"며 과거 이력을 공개했다.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 등 모든 영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가 하면 오리발을 끼고 오로지 근육의 힘으로만 나아가는 고난이도 핀수영까지 선보이며 '예체능' 에이스로 떠오른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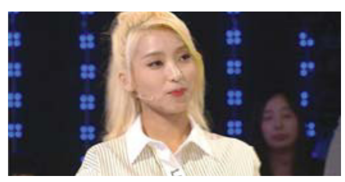
인재양성의 메카인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첫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는 수학 문제와 마주하게 되자 걸쭉한 사투리를 쏟아낸다. 빅스 멤버 엔도 정은지와 붙어 다니며 찰떡 호흡을 보여준다.



◆ KBS2 '1대100'

오후 8시55분

걸그룹 씨스타 보라가 1인으로 출연해 5000만원의 상금을 놓고 100인과 경쟁한다. 배우 지창욱, 개그 작가 유병재, 가수 박재범 등이 이상형으로 지목한 바 있는 보라는 자신의 이상형으로는 배우 송중기를 꼽아 팬심을 드러낸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오징어 특집이다. 어렵기로 소문난 오징어 손질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공개한다. 숙회부터 초무침, 매콤한 볶음과 덮밥, 그리고 여름밤의 별미인 중국식 통고치까지 다양한 오징어 요리법을 공개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7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스페셜	50 오늘부터 사랑해 (74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1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1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47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10회)	00 화정 (30회)	00 상류사회 (14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졸업>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U.F.O.>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뮤비뱅크 2 (5회)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6회) (재)		30 2015 테이스티로드 (13회)		10 무비스토커 (2회)	◆ 프로야구 (18:30) 넥센 vs LG (SPOTV+, SPOTV) KIA vs 삼성 (MBC SPORTS+) NC vs 롯데 (SBS SPORTS, IB SPORTS) 두산 vs SK (SKY SPORTS) 한화 vs KT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20 집밥 백선생 (9회) (재)	30 오늘 뭐 먹지? (16·81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3회)	30 호스트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8회)	30 유미의 방 (4회)	00 와일드 24: 칠레 아타카마 사막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6회)	40 집밥 백선생 (10회)	00 올리브쇼 2015 (20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2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28·56회)	00 화성탐사로봇, 큐리오시티	00 경주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3회)	00 신분을 숨겨라 (12회)	00 유미의 방 (4회) 30 MAPS (3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난공불락의 요새, 지크프리트선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6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8회) (재)	40 주문을 걸어 (1회)	00 <동물을 해부하라!>코끼리	50 불릿 투 더 헤드	

최운정, 아빠 캐디와 7년 만에 LPGA 첫승

<157번 도전>

공동 선두였던 장하나와 연장 끝에 우승
한국선수들 11승 합작 시즌 최다승 타이



이미향(가운데)이 20일 끝난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한 최운정과 그의 아버지이자 캐디인 최지연 씨에게 샴페인을 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최운정(25·볼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7년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차지했다.

최운정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의 성적을 낸 그는 장하나(23·비씨카드)와 공동 선두가 돼 연장 승부를 벌였다.

연장 첫 경기인 18번홀(파5)에서 최운정은 파를 지키며 보기를 범한 장하나를 따돌리고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최운정은 2009년 LPGA 투어에 데뷔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 2013년 11월 미즈노 클래식 등에서 준우승을 했을 뿐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이번 우승은 LPGA 투어 157번째 도전만에 수확한 트로피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 달러(약 2억5000만원)다.

최운정은 "주위에서 '(전문 캐디가 아닌) 아빠가 캐디를 해 우승을 못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며 "하지만 오늘 아빠가 옆에서 '참고 기다리라'며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최운정은 아버지 최지연 씨가 캐디를 맡아 경기에 나서는 '부녀 콤비'로 유명하다. 경찰관 출신인 아버지는 딸이 2부 투어에서 뛸 때인 2008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8년간 캐디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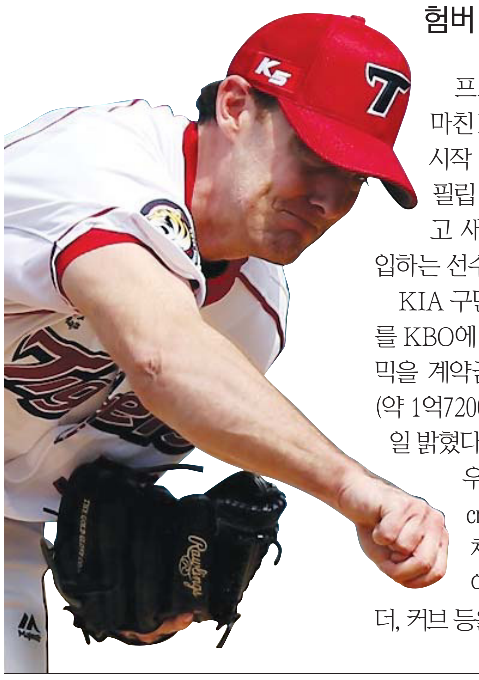
최운정은 이어 "일단 첫 승을 했으니 그다음은 좀 더 쉽게 올 것"이라며 "원래 목표를 크게 잡는 편이 아닌데 앞으로 2승, 3승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은 최운정의 우승으로 올해 LPGA 투어에서 11승을 합작해 2006년과 2009년에 세운 한국 선수 최다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이는 교포 선수들의 우승 횟수를 제외한 수치다.

디펜딩챔피언 리디아 고(18)는 13언더파 271타로 펑산산(중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김효주(20)와 백규정(20)이 공동 5위(11언더파)를 기록했고, 박인비(27)는 공동 8위(10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KIA, 후반기 첫날부터 선수단 개편



험버 방출, 에반 믹 영입

프로야구 전반기를 7위로 마친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시작 첫날부터 외국인 선수 필립 험버(33·사진)를 방출하고 새 투수 에반 믹(32)을 영입하는 선수단 개편을 단행했다.

KIA 구단은 험버의 웨이버 공시를 KBO에 요청하고, 새 투수 에반 믹을 계약금 없이 연봉 15만 달러(약 1억7200만원)에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완 정통파인 믹은 키 186㎝, 체중 103㎏의 다부진 체구로 직구는 146~149㎞에 형성되고 커터, 슬라이더, 커브 등을 구사한다. 투구 밸런스가 뛰어나며 힘 있는 직구와 각이 좋은 변화구로 벌이는 과감한 몸쪽 승부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메이저리그 통산 179경기 196이닝 7승 11패 4세이브에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했다. 선발로 나선 적은 없고 항상 불펜에서 활약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300경기에 30승 28패, 평균자책점 4.05를 찍었다. 올 시즌엔 워싱턴 내셔널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에서 30경기에 나와 2승 4패, 평균자책점 2.15를 기록했다.

기대를 모았던 험버는 올 시즌 한국에서 12경기에 출장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6.75로 부진했다.

/김민준 기자

강정호, 멀티히트 6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강정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서 4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75(233타수 64안타)로 올랐다.

2회초 첫 타석부터 우전 안타를 쳐냈다. 후속타 불발로 홈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4회초 투수 땅볼로 물러난 강정호는 6회초 좌전 안타를 때려내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피츠버그는 1-6으로 패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10번째로 출전하지 않았다. 팀은 0-10으로 완패했다.

/김민준 기자



김신욱 '슈틸리케호' 첫 승선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출격

김신욱(울산·사진)이 2015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활약할 슈틸리케호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발탁됐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은 20일 축구회관에서 2015 동아시안컵(8월1~9일·중국 우한)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했다. 오는 27일 파주 NFC에서 소집돼 31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슈틸리케호는 8월 2일 중국과의 1차전을 시작으로 일본(8월 5일), 북한(8월 9일)과 잇달아 맞붙는다.

김신욱이 태극마크를 다시 단 것은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털고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22경기 동안 8골(1도움)의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슈틸리케 감독의 첫 호출을 받게 됐다.

김신욱과 함께 최전방을 지킬 원톱 자원으로는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상주)이 뽑혔다.

/김민준 기자

◆ 2015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표팀 명단

▷GK= 김승규(울산)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구성윤(콘사도레 삿포로)

▷DF= 정동호 임창우(이상 울산) 김주영(상하이 상강) 김민혁(사간 도스) 김기희(전북) 김영권(광저우 헝다) 홍철(수원) 이주용(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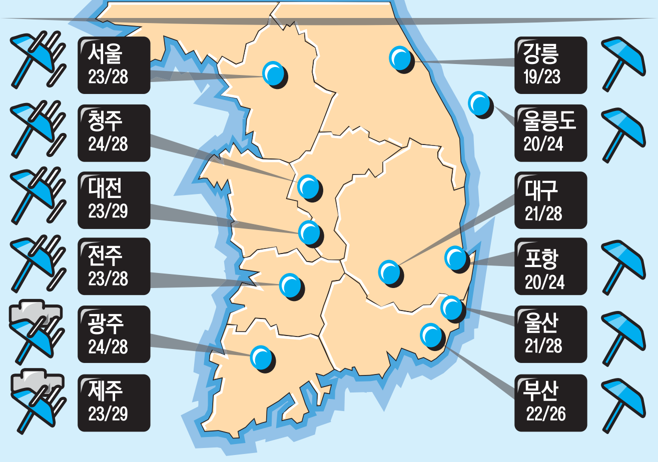
▷MF= 이재성(전북) 이찬동(광주) 장현수(광저우 푸리) 권창훈(수원)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 이종호(전남) 정우영(빗셀 고베) 김민우(사간 도스) 김승대(포항) 주세종(부산)

▷FW= 김신욱(울산) 이정협(상주)

날씨

7/21 화 일출시각 05:27 일몰시각 19:5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7	1	5				
		9	7		4		5	
6	1		5			9		
				4				
9	7		8			4		
		1	3		8		9	
		5	4	9				
						7		2

	9	2				4	3	
6								5
	3		9		7		1	
		5	6		8	3		
1	6			7			8	4
		8	3		4	5		
	4		1		3		5	
3								9
	8	6				1	4	

스도쿠 정답

5	4	6	9	8	3	2	1	7
8	2	7	1	5	6	3	4	9
1	3	9	7	2	4	8	5	6
6	1	4	5	3	7	9	2	8
3	5	8	2	4	9	6	7	1
9	7	2	8	6	1	4	3	5
2	6	1	3	7	8	5	9	4
7	8	5	4	9	2	1	6	3
4	9	3	6	1	5	7	8	2

8	9	2	5	6	1	4	3	7
6	1	7	4	3	2	8	9	5
5	3	4	9	8	7	2	1	6
4	2	5	6	9	8	3	7	1
1	6	3	2	7	5	9	8	4
9	7	8	3	1	4	5	6	2
7	4	9	1	2	3	6	5	8
3	5	1	8	4	6	7	2	9
2	8	6	7	5	9	1	4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The Emerging of 'NIS Agent Hacking' From a New Deto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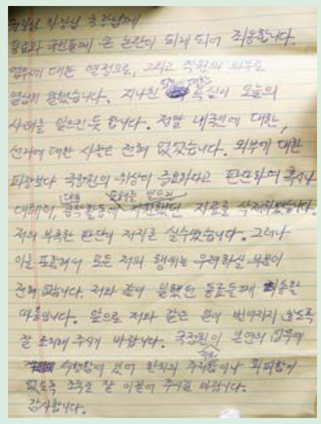
<정국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국정원 해킹' >

An official of NIS, who was recently found dead had denied allegations that the state-run intelligence agency surveilled civilians through a hacking program, in a death note posthumously released by the police Sunday.

The opposition party has stated that this is the third political suicide and cannot be understood as a just suicide.

Criticism is arising that it had not been for the surveillance, death would end everything to all the problems.

Unlike other cases, the key witness has died appealing his dejection.



19일 경찰이 공개한 전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But because of 400GB of evidence which will reveal the truth, this suicide can be different from others.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전문가 고 임모(45)씨는 19일 공개된 유서에서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최 경위부터 시작해 "3번째 정치적 자살"이라는 평가와 함께 '납득하기 힘든 자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민간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만 하면 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경우처럼 이번에도 핵심증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400GB 분량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자살은 다른 자살과 다르다는 평가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도화살이 있다는데 카페를 차려도 될까요? 이성문제만 조심하면 적성에 잘 맞을 듯

사파이어 여자 67년 6월 19일 양력 4시경

Q 선생님 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 49살 된 여자 6월생인데 사주상담을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말해 주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온다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단계에서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갔으나 성과를 내기위해 물건을 사재기하고 위의 직급자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이성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당하고 아이도 남편이 데려 갔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어느 철학관에 가서 물어 보니 제가 도화살이 있어서 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물색하다가 카페를 동업으로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A 사주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착하고 예쁘게 생긴 화초가 더운 여름에 꽃이 피어 있는데 주변에 온천지가 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일지에 록근(綠根:녹봉을 뿌리로 함)하고 있다고 표현되며 태어난 시(時支:시간을 나타냄)에서 다행히 귀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월(年月)에 뜨거운 화(火)기가 사주뿌리에서 합국(合局:무리를 이룸)이 되니 자신의 기운이 설기(泄氣:기운을 뺏김)함이 극심하고 상관(傷官:남자를 상하게 함)이 많은데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도화에 설명을 해본다면 음력 5월에 화초가 꽃을 만개하여 허영심이 많고 묘(卯) 도화(桃花:복숭아꽃)에 음욕살(淫慾殺)이 자리하고 있어서 색정적인 기질에 밖에 나가면 뭇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형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추방해(九醜妨害)되니 이성간에 혼탁과 잦은 연애사로 가정 풍파를 일으키는 사주인데 상관(傷官)이 발달한 여자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자가 무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와 운을 알고 미리 대처하며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라 실수를 하게 되어 낭패를 보게 되며 더 운이 나쁠 때는 벌어 놓은 돈을 다 탕진하기도 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상관의 기운과 함께 자신과 동급의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비겁이 혼재(混在:혼탁하게 섞여 있음)하여 돈을 벌어도 새나가는 것이 많으니 동업을 한다면 늘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적성에 맞을 것이나 카페 업을 할 때 특히 주의 할 것은 이성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손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겪은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 하여 돈을 잘 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1일 (음 6월 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0년생** 일마다 여의하니 천금을 얻을것입니다. **72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84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소 **4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61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3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85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호랑이 **50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합니다. **62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6년생** 연수를 가게 되어 이상형의 이성을 만납니다.

토끼 **51년생**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87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용 **52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4년생** 지금까지 귀하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새겨 보세요. **76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88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뱀 **53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65년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77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이니라. **89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말 **54년생** 우연히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등 재물이 쌓입니다. **66년생** 소원을 풀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귀하를 도울 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90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양 **55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7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9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91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68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2년생** 평화로운 중에 항상 함정이 있는 법입니다.

닭 **57년생** 시기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69년생**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의 대하세요. **8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93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개 **58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70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직장운과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94년생**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1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95년생**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길합니다.

삼성-엘리엇 분쟁 이제부터가 시작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근소한 차이로 성사됐다. 성사된 배경엔 소액주주들의 '애국심' 효과가 보인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찬성은 하지만 합병비율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합병 직후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대다수 언론들이 삼성물산의 압승이라고 표현했다. 분명 잘못된 표현이었다. 실상은 근소한 차이로 겨우 통과된 것이다.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참석주주의 66.67%가 찬성해야 했는데, 이날 69.53%를 얻었으니 2.86%p 많은 것에 불과했다. 가까스로 이겼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주총 당일 엘리엇 매니지먼트 의결권 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1.4%)에 대한 포괄적 위임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중에서 3% 정도의 지분이 있는 한 곳만 반대로 돌아섰다면 부결됐을 것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더더욱 가까스로 찬성비율을 넘긴 것이다.

이날 엘리엇 대리인인 장대근 루츠알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분행사 권한을 위임하고 몇 월 며칠 어떤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 회장이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법적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의결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 회장의 위임장 제출 여부와 시기가 과연 적법하냐는 것이다.

엘리엇은 주총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독립 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된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예를 들어 문제 삼으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의 불합리한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합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은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엘리엇이 ISD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엘리엇은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와 페루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엘리엇이 삼성과의 장기 분쟁을 준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 5일 엘리엇은 삼성SDI와 삼성화재의 지분을 1%씩 매입했다.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모두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각각 지분 7.18%와 4.65%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사해임 등을 건의할 수도 있다. ISD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시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장

무책임 판치는 '成리스트 수사' 그 후



기자 수첩
연 미 란
<사회부 기자>

'무책임'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부끄러움 한 점 없는 검찰과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의 특검 주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침묵의 카르텔이 판치는 모양새다. 이로써 100일여 만에 망자의 이름과 그가 남기고 간 의혹의 실체도 완전히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82일간의 수사를 끝낸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 8인 중 2인은 불구속기소, 6인은 불기소됐다는 게 수사 발표의 핵심이다. 여기에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한 혐의을 받은 노건평씨에게 '공소없음'을, 김한길·이인제 의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 방침을 밝히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표면적으로 리스트에 오른 친박에겐 면죄부가, 리스트에 없는 범야권 측 인사들에 대해선 엄격한 수사의 잣대가 적용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장 특검 주장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을 주장하며 관련 공방이 지속될 듯 보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이 의원에 대한 지속 수사를 천명한 검찰이 소환 등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주장할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침묵하긴 마찬가지다. 불기소 처분이 난 리스트 6인이 친박계 인사인 까닭에 특검을 주장해 추가 기소 사례가 나오면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침묵하는 이유다. 사실상 정치권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 특검 카드를 가져다 쓴 격이다.

검찰도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기준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면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이번 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이 전 총리는 차기 총선 출마를 걸었고, 홍 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재판 사정을 비교적 훤히 안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침묵의 카르텔이 법원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 사

■ KDB대우증권

△신임 <부점장> ▲강북 PIB 1센터장 김윤수 ▲투자정보지원부장 김평진 △전보 <부서장> ▲PB클래스 서울파이낸스 총괄센터장 겸 1센터장 최홍석 ▲Prop.트레이딩 부장 김성주

■ 경남지방경찰청

△경정급 전보 ▲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병태 ▲마산중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하창목 ▲마산중부서 경비교통과장 김진안 ▲마산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건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지홍 ▲거제서 경비교통과장 조덕종 ▲통영서 생활안전과장 신규영 ▲함안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노길용 △경감급 전보 ▲외사과 외사정보계장 직무대리 김기호 ▲여성청소년과 강동균 ▲창원중부서 김지열 ▲창원중부서 최기동 ▲창원서부서 청문감사관 직무대리 김명수 ▲ 창원서부서 감병도 ▲마산중부서 정성훈 ▲진주서 김대호 ▲진주서 이현주 ▲김해중부서 정영근 ▲김해중부서 조민철 ▲ 김해중부서 표인섭 ▲김해서부서 청문감사관 직무대리 안쾌현 ▲김해서부서 강봉균 ▲김해서부서 이동길 ▲사천서 청문감사관 김재기 ▲사천서 정보보안과장 박경식 ▲사천서 이용수 ▲밀양서 생활안전과장 반인호 ▲밀양서 여성청소년과장 손인현 ▲거창서 구현진 ▲합천서 청문감사관 최영곤 ▲합천서 수사과장 홍용진 ▲합천서 정보보안과장 안옥원 ▲창녕서 경무과장 이창진 ▲고성서 청문감사관 이용찬 ▲고성서 경무과장 한규봉 ▲하동서 청문감사관 이상근 ▲하동서 경무과장 김진국 ▲남해서 이기열 ▲함양서 정보보안과장 김성민 ▲산청서 심성보 ▲함안서 경무과장 신민철 ▲함안서 수사과장 김대홍 ▲함안서 김광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社說

대우조선 회계분식 책임 가려내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들이 뒤늦게 바빠졌다. 한국신용평가는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리고 동부증권은 목표주가를 60.4%나 낮췄다. 전형적인 '뒷북치기'이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석 보고서를 낸 국내 17개 증권사 가운데 14개사가 줄곧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해 왔다. 심지어 일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제 이 증권사들은 지금쯤 스스로 낯 뜨거울 것이다.

그렇지만 낯 뜨거울 사람들은 증권사나 신용평가사 뿐만이 아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계법인도 사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31.46%를 가진 대주주로서 책임이 무겁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줄곧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맡아 왔는데도 회계 분식을 막지 못했다. 대주주인 국책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증권사 등 내로라 할 전문가들이 모두 집단적 착각이나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는 사이 대우조선의 경영과 재무상태는 거듭 악화되었다. 대우조선이 우량기업인 줄로 믿어온 투자자와 국민만 속은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은 회계분식이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을 겪고도 아직도 이렇게 후진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뒤늦게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의 경영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 샅샅이 뒤져본다고 한다.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같은 대형 국가기간산업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회계분식 의혹의 책임은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부실회계를 방조 또는 묵인은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휴가철 장거리운전 시 점검 사항

타이어 공기압·냉각수 등 여행 전 확인 필수

소비자 119



코란도 패밀리브랜드. /쌍용차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점검 없이 피서지로 장거리 운전을 나서면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타이어와 냉각수, 와이퍼 등은 여름철 필수 점검 사항이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파손, 파열 사고는 노면과 대기의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내부 공기압을 봐야 한다.

공기압은 타이어 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감소한다.

여름철에는 한낮의 폭염과 새벽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공기압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타이어 공기가 쉽게 손실된다.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충해줘야 한다.

공기압이 과다 주입된 경우보다 공기압이 부족할 때가 더 위험하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제동력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기압 부족 상태에서 장시간 주행하면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닳는 편마모가 발생하고 연료효율이 떨어진다.

차상대 브리지스톤 상품총괄팀장은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손상되고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공기압 상태 점검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 상태를 확인해서 심할 경우 교체해야 한다. 이때 브레이크 오일의 양도 함께 점검한다.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 갑자기 기능이 정지해 엔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배터리는 2~3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ROYAL PALACE
요즘 뜨는 실속형 아파텔 분양
아파트 보다 좋다!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모델하우스 개관 중)
※ 전세대 풀옵션 빌트인 제공 및 42인치 TV제공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만족!
투자는 200%만족!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송도국제도시
배곧대교(예정)
서울대국제캠퍼스
서울대학교 병원
배곧생명공원
롯데마트
신세계 아울렛
PREMIUM OUTLETS
오이도
달월
월곶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한국경제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영등포 청과시장 사거리
영등포시장 사거리
영등포시장역 (지하철5호선)
모델하우스
영등포소방서
타임스퀘어
1호선 영등포역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서울대 신도시에 투자가치로 빛난다
문의전화 02)6334-9395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